



출판 불황은 전세계적인 현상인 모양이다. 국제도서전의 참여 열기가 예전 같지 않고 스타급 작가들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각국의 출판사와 서점들은 저마다 기발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불황 극복에 나서고 있다. 이 지면은 해외출판가의 최신 소식을 통해 역시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 출판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전망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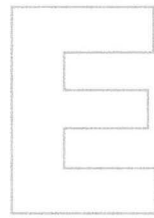
## 01 활발한 러시아문학시장

2003년은 러시아의 현대작가들을 알 수 있게 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올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주빈국 러시아는 '러시아의 새로운 면'이라는 제목으로 100여 명의 러시아 작가들을 소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라스노스트' 이후 러시아에서는 문학 시장이 자유로워졌으며 검열이 사라져 러시아 문학계는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보리스 아쿠닌, 다르야 돈조바, 알렉산드리아 마리니나, 폴리나 다쉬코바 같은 추리작가들은 러시아에서만 유명한 작가들이 아니다. 이들의 새로운 작품들이 이번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는 여성문학 분야에서도 행사를 마련, 스펠트나 바실렌코의 신작들을 발표한다.

## 02 해리 포터 제5권 Harry Potter and the Order of the Phoenix발매 시작

6월 21일 00:01분, 영국과 미국에서 동시 발매를 앞두고 있던 해리 포터 5권 《해리 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Harry Potter and the Order of the Phoenix》 수천 부가 잉글랜드 동북부에 있는 뉴튼 르 윌로즈의 창고에서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



했다. 훔친 책을 신고 있던 차량은 맨체스터 부근에서 빈 채로 발견되었다. 손실액은 백만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리 포터 제5권은 여러 면에서 기록을 세우고 있다. 먼저 발행 부수에 있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에서는 블룸즈베리 출판사가 350만 부, 미국에서는 스콜래스틱 출판사가 850만 부를 출간했다. 전세계적으로는 1억 1천만 부 이상이 출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포터 제5권은 또한 이제까지 출판된 해리 포터 시리즈 중 가장 무거운 책이 될 것이다. 896페이지, 255,000개의 단어, 3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게는 1킬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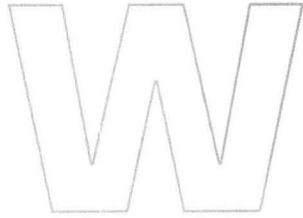
해리 포터 제5권의 영국 판매 가격은 16.99 파운드, 미국 판매 가격은 29.99 달러이지만 두 나라 모두 도서정가제가 없기 때문에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져 40퍼센트까지 할인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 03 영국 BBC의 Big Read 캠페인

영국 공영방송 BBC의 자회사 Big Read가 주관하는 캠페인이 영국에서 일찍이 없었던 독서 열풍을 만들어가고 있다.

BBC의 Big Read 캠페인은 독특하다. 먼저 영국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즐겨 읽는 책을 추천하도록 했다. 140,000명의 영국 국민이 이에 응답했는데 7,000여 권의 도서가 추천되었다. BBC는 그 중 100권의 도서를 선정하였다. 이 도서들은 현재 서점의 베스트셀러 리스트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BBC는 황금시간대에 도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며 영국 출판사들은 자사와 자사 도서들을 광고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한다. WH Smith 서점을 비롯한 영국 서점들도 특별 도서 패키지를 내놓았다. BBC의 Big Read는 독서의 대중화와 출판 활성화라는 목적을 이룬 캠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Big Read 웹사이트: [www.bbc.co.uk/arts/bigread/](http://www.bbc.co.uk/arts/bigread/)



## 04 미국 1분기 도서 판매 10퍼센트 감소

독일의 <랑엔도르프스 디스트>지誌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출판 시장에서 이미 1, 2월에 도서 판매가 감소한 데 이어 올 1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0퍼센트 감소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출판 시장은 다른 도매분야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2003년 3월 미국 도서 판매는 3.4퍼센트의 성장을 기록한 다른 도매분야들에 비해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 05 영국, 꾸준한 학술 도서 판매

영국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판매가 디지털 콘텐츠, 복사, 계속 인상되는 등록금 등 압박요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출판협회의 학술 및 전문도서 출판회의의 의뢰로 북 마케팅사 Book Marketing Ltd.가 27개 대학 750명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도서구입 유형은 지난 2년 간 약간 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은 도서구입에 연간 평균 133파운드를 지출하며, 평균 도서 구입량은 7권 정도이다. 구입도서 중 80퍼센트는 새 책이었으며, 헌 책 구입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서점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내 서점과 체인 서점이 학생들의 주 도서구매 장소가 되고 있다. 90퍼센트의 학생들이 오프라인 서점에서 새 책을 구입하였고, 10퍼센트의 학생들만이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였다.

## 06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출판사는?

지난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매출을 올린 출판사는 하퍼콜린즈 HarperCollins로 밝혀졌다. 미국의 출판 전문잡지의 조사에 의하면 하퍼콜린즈는 작년에 8억3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



록했고 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펭귄 푸트넘 Penguin Putnam사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퍼콜린즈는 캐나다에서의 매출을 포함했지만 펭귄사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가장 큰 출판사는 알려진 대로 랜덤 Random사로 작년의 매출이 14억 5천만 달러에 달했다.

## 07 오프라 윈프리의 북클럽

미국의 인기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의 북클럽이 다시 시작되었다. 오프라는 존 스타인벡의 《에덴의 동쪽》을 첫 선정도서로 발표하였다. 이 발표가 있는 1시간 후 가격 16달러의 이 책은 아마존 판매순위 2,356,000위에서 113위로 단숨에 뛰어 올랐다. 이는 오프라가 도서 선정에 있어 고전 문학에 중점을 두는 것에 대해 독자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스타인벡의 작품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펭귄 출판사는 이 선정에 맞추어 1쇄 60만 부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오프라 쇼에서 이 책에 대한 토론이 방송되기 이전에 수천 권의 헌책들이 유통될 것으로 보여 새 책이 얼마나 판매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포틀랜드에 있는 파웰 북스 서점의 구입 담당 매니저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전문학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 헌 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매년 4~5만 부 판매되는 《에덴의 동쪽》은 《분노의 포도》, 《쥐와 인간》, 《진주》와 함께 존 스타인벡의 중요한 작품 가운데 하나다. 작년의 경우 7만 부가 판매되었는데 이는 존 스타인벡 탄생 100주년과 관련해 5개월 동안 진행된 축하 행사 때문이었다.

문승현\_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